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랫 동안 기다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은 탕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두 아들 모두가 놓치고 살았던 것은 자족과 감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지,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두 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두 아들은 모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장남은 둘째 탕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베푸는 아버지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아들 중 하나에 속합니다. 재산을 탕진하는 실수를 범하고 나서야 감사를 배운 탕자처럼, 풍족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자족하지 못하는 장남처럼 살아가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신 부모님의 사랑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한 해 동안 우리의 필요를 아낌없이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가족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명절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에 온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 다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편 50:13)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에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김없이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예배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331장(통일찬송가 375장) 다같이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기쁨으로찬양 197장 선�하신 목자

기 도 가족 중에서

말씀나눔 누가복음 15:17~24(신약 p121) 인도자
“탕부 하나님”

축복과 비전나눔 온가족이 함께

가족 모두가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나누고
집안 어른들은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찬 송 429장(통일찬송가 489장) 다같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기쁨으로찬양 127장 다 감사하자 주께

마 무 리 주기도문 다같이

탕부 하나님(누가복음 15:17~24)



추석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하거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고향가는 길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마음의 본고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यो,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고향으로 향할 때의 기준은 자신의 상태와 연관을 지어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고향가는 길이 가볍고, 초라하면 가기 싫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한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이 말씀을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The Prodigal God)이라는 주제로 바꾸면서 우리의 시각을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돌려놓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 잃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첫째,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철없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무작정 달라고 할 때(12절), 자신이 받은 재산을 싸들고 먼 나라로 갈 때(13절), 부모에게 연락도 없이 가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할 때도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오로지 인내하며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릴 때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아들을 기다렸는지 눈이 짓물고 멀게된 상태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17절) 비로소 고향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계신 고향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탕자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

로 용기내어 길을 재촉합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 7)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출 20:12). 성경은 부모공경에 대해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탕자 아들을 맞이하는 탕부 아버지의 태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은 애간장이 탈 정도였습니다. ‘측은히 여겨’(20절)란 말은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아들의 몰골을 보니 아버지는 역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버지는 안타까움과 함께 긍휼한 마음으로 거지 형세를 한 아들을 몇 번이고 입을 맞춥니다(20절). 집안의 종들에게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표징인 가락지도 끼우고, 집안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신발까지 신깁니다(22절). 아들은 거지로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대접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송아지까지 잡아서 온 동네잔치를 엽니다(23절). ‘우리가 먹고 즐기자’는 청유형 문장은 ‘잃은 양의 비유’(눅 15:1~7),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눅 15:8~10)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눅 15:6, 9)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보다 아들의 존재와 함께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